

#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양명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Nam Univ.

Associate Prof. : Yang, Myong-Su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the stability of the future marriage by understanding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among pre-parents. For this purpose,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s were compared between male (N=340) and female(N=363) university students, Tajeon. The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F-Test, Multiple-Regression and Duncan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2) The most important demographical variable influencing to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was sex. 3) With regard to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values of marriage and the positive values of child were negative. But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values of marriage and the preference for a son were positiv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reference for a son and the values of sex role were also positive. With regard to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values of marriage and the values of sex roles were positive.

\* 본 연구는 1994년도 한남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 I. 서론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제도로 그 사회의 기본적인 고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이 가족공동체가 후기 산업사회를 맞이하면서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선진 서구사회에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Goldbrunner H., 1992). 우리 나라에서도 매년 급증하는 이혼율과 더불어, 가정의 안정성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화의 영향과 더불어 현대 한국가족의 기능은 변화되었는데, 사회가 근대화되고 공업화되면서 가정의 가시적, 물리적 기능은 약화되고, 비가시적 심리적인 기능은 증가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가족의 기능에 부부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능에 역할 적응을 하지 못할 때 가족간에는 불화가 조성되고, 가족 집단주의적인 사고지향이기보다는 개인 중심적인 사고의 경향으로 가족은 쉽게 와해되기도 한다(이광규, 1989; 전병제 외, 1994; 한남제 외, 1994).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개인간 세대간의 차이는 가족 내에서나 사회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건강한 가족 형성의 입문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새롭게 자신의 가정을 형성하게 될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봄으로써, 가치관의 혼재에 의한 갈등을 예측해 보고, 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미래 가정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새로운 가정의 출발은 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

에서의 성에 의한 가치관 차이는 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남·녀의 가치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성별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연령,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부모의 월평균 수입, 가족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1. 결혼관

결혼은 성인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인간의 생활양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성적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자손의 번식을 도모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는 고전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결혼의 안정성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가족의 해체라는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자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Schneewind, 1991). 늘어나는 부모들의 이혼율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은 점차 법적인 결혼을 기피하고, 동거를 선호하고 있으며, 동거 기간 중에 자녀가 생길 경우, 이 때를 기하여 결혼을 하는 소위 "Baby Marriag"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거율과 더불어 독신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출산율은 저하되고,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파괴되고 있다(Ebel, et al, 1984; Hoeflinger, 1987; Schneewind, 1991). 결혼에 대한 가치관 혼란은 기형적인 결혼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결혼의 미래는 앞날을 예측해 보기 어렵게 되었다. 불안정한 결혼은 가정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결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의 필요성은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

하여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 선택은 여전히 직접·간접적으로 부모의 영향과 더불어 사회 계층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이성해, 1979; 최신타, 1980). 혼전순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유영주, 1976; 한국여성개발원, 1992)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허용적인 이중규범(double standard)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과속화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사회와 가족제도의 변화로 혼전 성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애정이 전제된 혼전 성관계가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선, 성미애, 1983; 심영희, 1992). 동거에 대한 가치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 합법적인 결혼보다는 애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중시한 경향에서 선택되기도 하는데, 동거는 전통적인 약혼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상호관계의 시험을 제공하므로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믿는 반면(Bumpass, 1991; Macklin, 1978; Mead, 1966; Trost, 1975; 서정아, 1995 재인용), 최근의 미국, 스웨덴, 캐나다의 연구자들은 동거가 결혼을 붕괴시킬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Tomson & Colella, 1992).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동거는 실험혼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또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남녀가 결혼할 여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단계로, 혹은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이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대부분 결혼과 다름없는 가족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성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서구적 사고 방식에 의한 동거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강호철, 1984; 김태현, 1993; 이영자, 1993). 과거 이혼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억압되어 왔으나, 현대에 있어서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한 대처로 받아지고 있다. 이혼에 대한 연구(김정옥, 1992; 김정옥, 박경규, 1993; 최신타, 1991) 등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결혼 비율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이혼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취업과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역할분담"에 의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여성이 모두 담당하는 이중적인 부담으로 갈

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편들의 여성취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회피로 부부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여성들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아예 직장을 원하지 않게 된다(김양희, 1991; 문선화, 조성해, 1991; 최중욱 외, 1990).

결혼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점차 변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남녀 차별과 남녀역할 분담에 대한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고수하고 있어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립으로 가치관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변화와 교육을 통하여 남녀 평등 사상은 고조되고 있으나 인간이 내면화하고 있는 가치규범은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과 특히 남성위주의 가치관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래 가정의 주인공이 될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봄으로서 미래 가정의 안정성을 예측해 보고, 특히 남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서 바람직한 결혼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자녀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연구는 출산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접근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efl & Schmid, 1985).

먼저 사회학적·사회심리학적 접근이론에서는 문화적 측면을 주로 고려하여, 사회의 인간적 관계성에 주안점을 둔 자녀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Mackensen, 1982; Schmid, J., 1979, 1984; Yang, 1990 재인용)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자녀로 인한 장·단점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Arnold et al, 1975; Hoffmam & Hoffman, 1973).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녀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얼마나 자녀가 유용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Becker, 1960; Leibenstein,

Wander, Easterlin, 1964 ; Baiter, 1985 재인용).

Hoffman & Hoffman(1973)은 자녀의 가치관 연구는 부모의 출산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가족 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보상적 가치를 찾아내고, 출산동기와 출산경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가치를 유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기존 연구를 알아보면, 이숙재(1983)의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자녀가 주는 개인적인 측면과 가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으나, 자녀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성연(1986)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는 어머니 세대들이 딸 세대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명숙(1995)에 의하면 부모전환기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선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영향을 많이 받아 남아존중 사상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공정자, 차재호, 1973). 그러나 산업화와 핵가족화 이후에는 장남이나 아들에 의한 노후보장이 약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계중심의 가계계승이나 가문의 번영을 위한 남아선호 현상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시중, 김기태, 1976 ; 이호재, 이동원, 1974 ; 임진, 1991 ; 한남제, 1991 ; 황인실, 1988).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세대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성별에 의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비 부모세대인 대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고, 남·녀간의 가치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성역할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 사이에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되어져 왔는데 이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인간세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면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김동일, 1991).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특정한 인간 집단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가지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적으로 단순화된 관념을 의미하며, 이에는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견해가 포함된다(Wrightman, 1977 ; 김동일, 1991 재인용). 따라서 성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김동일, 1991).

성에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에 유교적 가치관에 의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가치관이 만연했던 경우에는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서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남녀 평등사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점차 각분야에서 남녀의 평등권을 주장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성익할 고정관념과 편견은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고 방식과 마찰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가정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며 특히 가정에서의 갈등은 이혼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성익할에 관련된 고정관념은 특히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직업 및 외적 특성에 관한 성 고정관념과 사회 심리적 특질 및 지적 특질에 관련된 고정관념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경향성과 더불어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대학교(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1994년 5월 1일에서 5월 10

일 까지 조사되었다. 총 800명(남학생 400명, 여학생 400)에게 설문조사하였는데, 이중에 총 703부(남학생 340명, 여학생 363명)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여학생이 51.6%, 남학생이 48.4%, 연령은 21세 이하가 50.9%, 24세 이상이 26.9%, 그리고 22-23세가 22.2%로 나타났다. 전공별 분포는 이공계가 40.3%, 인문사회계가 33.9%, 가정계 16.5%, 예·체능계 9.4%로 나타났으며, 출생 순위는 장남(녀)가 41.4%, 막내 28.4%, 차자(녀)이하 22.3%, 외아들(딸) 8.1% 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48.4%, 기독교 26.5%, 불교 13.8%, 천주교 10.2%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 분포는 부의 경우 고졸이 38.1%, 대졸 이상 32%, 중졸 이하 29.0% 였고, 모의 경우 중졸이하 51.3%, 고졸 40.4%, 대졸 이상이 7.5%로 나타나 대체로 아버지들의 학력 수준이 어머니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분포는 부의 경우 비전문직(농·수산업, 생산직, 서어비스직, 자영업)에는 52.5%, 전문직(사무직,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전문직)에 38.9%로 나타났으며, 모의 경우는 전업 주부가 47.2%, 취업 주부가 40%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00-150만원 미만인 30.0%, 150-200만원 미만인 20.9%, 200만원 이상이 20.9%, 100만원 미만인 20.8%로 나타났다.<sup>1)</sup>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1.2%, 확대 가족이 18.8%로 나타났다.

## 2 측정 도구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12문항으로 성, 연령, 전공, 결혼상태, 출생순위,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월평균 수입, 가족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결혼관에 사용된 문항은 34문항, 자녀관에 사용된 문항은 18문항, 성역할관에 대한 문항은 21문항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 1) 결혼관

결혼관은 결혼의 필요성 및 의의, 배우자 선택, 혼전순결, 동거, 여성취업, 가사노동,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의  $\alpha$ 값을 구하였다. 결혼의 필요성 영역에는 결혼의 필요성, 결혼시기, 결혼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며, 6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74이다. 배우자 선택에 대한 영역은 배우자 선택방법, 배우자 결정, 결혼조건, 궁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8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61이다. 혼전순결에 대한 영역은 남녀의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허용성,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묻는 내용이며, 4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73이다. 동거에 대한 영역은 동거에 대한 태도 및 허용여부, 결혼 대안으로서의 동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4문항으로 신뢰도는 0.74이다. 이혼에 대한 영역은 이혼의 의미, 결혼 후 배우자의 부정이나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이혼여부, 자녀의 유무에 따른 이혼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4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50이다. 여성취업에 대한 영역은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여성취업의 기회부여, 취업기간을 묻는 내용이고, 4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77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영역은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역할분담 및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4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80이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반반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점을 기준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1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경향이 높다. 진술방향이 반대로 표현된 문항은 점수를 반대로 주었다.

### 2) 자녀관

자녀관 측정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8문항으로 남아선호와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부정적 가치관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7문항으로 자녀를

1) 부모의 직업분포와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서 전체의 %가 다른 것은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통해 얻는 사회 심리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묻는 내용으로, 7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계수로 0.79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은 6분항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의미하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0.74로 나타났다. 남아선호는 남아선호의 정도 및 남아선호 이유, 남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계수로 0.78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에 대한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반반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점을 기준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에 대한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반반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점을 기준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자녀로 인하여 주어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자녀로 인하여 받게 될 부정적인 측면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남아선호에 대한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반반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점을 기준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남아선호에서 탈피하여, 자녀 성별에 대하여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1점에 가까울수록 여전히 남자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성역할관

본 연구에서는 김동일(1991)의 성역할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김동일(1991)의 질문지 중에 가정적 성역할관과 사회적 성역할관은 이미 결혼관에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제외하고, 직업 및 외적 특성에 대한 9개 문항과 사회적 심리적 특질에 대한 7문항 및 지적 특질에 대한 5개 문항을 채택하였다.

직업 및 외적 특성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87, 사회 심리적 특성은 0.81, 지적 특질은 0.86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반반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점을 기준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1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경향이 높다. 진술방향이 반대로 표현된 문항은 점수를 반대로 주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t-검정으로 알아보았고, 각 하위영역의 문항별 남녀의 차이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과 F-검증, 그리고 Duncan 검증을 사용하여 변수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의 관계는 피어슨의 직률 상관계수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결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만을 채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결혼관

#### 1) 남·녀 대학생의 결혼관 비교

남·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을 <표 1>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남학생들은 동기와 이혼에서 보수적인 경향을, 여학생들은 동기에서만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먼저 결혼의 필요성을 보면 여학생들의 가치관( $M=3.92$ )이 남학생들의 가치관( $M=3.49$ )보다 더 자유주의적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결혼의 필요성이 여성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경향으로 높게 나타난 이성해(1979)와 최신덕(1980)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점차 여학

생들이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남학생들(M=3.44)과 여학생들(M=3.30)은 대체로 진보적인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남·녀 대학생 모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족들의 영향을 직접·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분항분석 결과 나타났다. 혼전순결에 대하여 여학생들(M=2.99)은 보수적인 경향성을 그리고 남학생들(M=3.07)은 진보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의 혼전순결이 더 중시되는 경향성이 남학생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여학생들에게서도 문항별 분석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에게 더 허용적인 성에 대한 이중규범의 경향성(유영주, 1976, 한국여성개발원, 1992)이 여전히 대학생 집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학생들(M=2.58)이 남학생들(M=2.89)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남녀 모두 보수적인 경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서구사회의 대학생들 간에 만연하고 있는 동거형태가(Schneewind, 1991) 대전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더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이혼에 대해서는, 여학생들(M=3.33)이 남학생들(M=2.89)보다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세대인 여대생들은 배우자의 부정 및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자녀가 있을 경우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경향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이와

함께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이혼에 있어서 여학생의 태도가 남학생들 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들도 이혼에 있어서는 대체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취업에 대하여 여학생들(M=4.23)이 남학생들(M=3.54)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가사노동에서도 여학생들(M=4.33)이 남학생들(M=3.57)보다 더 진보적인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여성취업에 있어서 결혼과 경제력에 좌우되기 보다는 자아실현으로서의 취업을 열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성역할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특히 맞벌이 부부일 때,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결혼관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가사노동(M=4.33)과 여성취업(M=4.23)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었고, 동거(M=2.58)와 혼전순결(M=2.99)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동거에 대하여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가사노동(M=3.57)과 여성취업(M=3.54)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경향을 나타내었고, 동거(M=2.87)와 이혼(M=2.89)에서 대체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남학생들도 동거에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sup>2)</sup>

〈표 1〉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변 인	남			여			t
	N	M	SD	N	M	SD	
결혼의 필요성	340	3.49	0.62	363	3.92	0.54	9.98***
배우자 선택	340	3.44	0.49	363	3.30	0.46	3.69***
혼전순결	340	3.07	0.61	363	2.99	0.66	4.77***
동 거	340	2.87	0.80	363	2.58	0.86	4.64***
이 혼	340	2.89	0.61	363	3.33	0.63	9.30***
여성취업	340	3.54	0.68	363	4.23	0.59	14.46***
가사노동	340	3.57	0.70	363	4.33	0.52	16.23***

\*\*\* P < .001

2) 통계방법은 Multiple-Regression과 F-검증 그리고 Duncan-검증을 사용하였으나, 지면관계상 통계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먼저 결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차에 의한 차이를 배제한 다른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차와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는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전 순결에 있어서는 성차에 의한 차이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동거에서는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서는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에 있어서는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

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결혼관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성은 기타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다른 변수들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결국 성차에 의한 차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녀관

### 1)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관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관은 <표 2>에서와 같이 대체로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알아보면, 남·녀 모두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남학생들이( $M=3.59$ ) 여학생들( $M=3.23$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같은 질문지를 사용한 부모진환기에서의 양명숙(1995)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임신기에서나 자녀의 출산 후에도 아버지들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더 높음으로 나타나, 아직 미혼의 대학생 집단과 부모진환기에서의 부모집단의 경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에서는 남·녀 모두 자녀를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학생들( $M=3.03$ )은 남학생( $M=3.39$ )들보다 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양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임신 전·후기에

<표 2>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변인	남			여			t
	N	M	SD	N	M	SD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340	3.59	0.58	363	3.23	0.58	68.17***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340	3.39	0.60	363	3.03	0.65	56.62***
남아 선호	340	3.23	0.74	363	3.76	0.63	101.39***

\*\*\*  $P < .001$



자녀에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장애요인으로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대학생 집단과 부모집단의 차이라 사료된다. 이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가치에 있어서 부모전환기의 여성들은 실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들보다 자녀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학생들의 경우는 자녀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자신들의 취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남학생들보다 자녀에 대하여 덜 낙관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결혼 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현대의 여학생들에 있어서,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여성들은 역할갈등으로 취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도 예측됨에 따라(김양희, 1991 : 문선화, 조성혜, 1991 : 최종옥 외, 1990) 여학생들에 있어서 자녀의 장애요인이 부각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2〉에서와 같이 남아선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여학생 모두 대체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나, 여학생들이(M=3.76) 남학생들(M=3.24)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의 연구(유시중 외, 1976 : 황인실, 1988 : 임진, 1991)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약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부계 혈통에 의한 가계계승이나 가문의 번영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sup>3)</sup>

〈표 3〉 남·녀 대학생들의 성역할관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 검증

변 인	남			여			t
	N	M	SD	N	M	SD	
직업 및 외적 특성	340	2.55	0.67	363	3.33	0.74	212.85***
사회적 심리적 특질	340	2.70	0.69	363	3.06	0.73	43.06***
지적 특질	340	2.91	0.88	363	3.74	0.76	197.94***

\*\*\* P < .001

긍정적인 자녀의 가치관에서는,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왔으며, 부정적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성차에 의한 차이가 이들 변수에 미친 영향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변수 자체에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긍정적 자녀 가치관과 부정적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남아 선호에 있어서는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 또한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가치관과 남아선호에 있어서 성차에 의한 차이외에 다른 변수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역할관

1)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관

남·녀 대학생들의 성역할관을 〈표 3〉에서 보면, 직업 및 외적 특성에 있어서 여학생들(M=3.33)이

3) 통계방법은 Multiple-Regression과 F-검증 그리고 Duncan-검증을 사용하였으나, 지면관계상 통계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남학생들( $M=2.55$ )보다 더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심리적 특질에 있어서 여학생들( $M=3.06$ )이 남학생들( $M=2.70$ )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특질에 대하여서도 여학생들이( $M=3.74$ ) 남학생들( $M=2.91$ )보다 더 진보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경향은 김동일(1991)의 연구결과에서도 젊은 여성층(29세 미만)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연하게 나타났다. 문항분석 결과 여학생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하여 구분되는 직종과 여자에게는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편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에, 남학생들은 대체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도 여자는 남자보다 성취욕이나 적극성 그리고 지도력 등이 약하다 것들에 대하여서는 거부하는 반면에, 남자들이 여성들보다는 더 공격적이라든지, 남자들에게 모험심이 더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학생들도 대체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심리적 특질에 있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적 특질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유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남학생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 2) 성역할관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sup>4)</sup>

직업 및 외적 특성은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이 또한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성차와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심리적 특질에 있어서는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

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도 이차 변수에서도 없었다. 지적 특징에서는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에 따라 유의하게 나왔으나, 이 또한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에 의한 유의한 차이와 성차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직업 및 외적 특성과 사회적·심리적 특질 그리고 지적 특성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의 관계

1)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관과 결혼관의 상관관계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관과 결혼관의 상관관계를 <표 4>에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결혼관은 부적인 상관관계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결혼관에서는 보수적인 것을 의미한다. 남학생들은 결혼의 필요성( $r=-.35$ )에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여학생들의 경우도 결혼의 필요성( $r=-.45$ )에서는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혼( $r=-.26$ ) 혼전순결( $r=-.24$ ) 배우자 선택( $r=-.23$ ) 동기( $r=-.23$ )에서는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과 결혼관은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동거를 제외하고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선택( $r=.25$ )에서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녀에

4) 통계방법은 Multiple-Regression과 F-검증 그리고 Duncan-검증을 사용하였으나, 지면관계상 통계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 4〉 남녀 대학생의 자녀관과 결혼관의 상관관계

		결혼의 필요성	배우자 선택	혼전순결	동거	이혼	여성취업	가사노동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남	-0.35***	-0.13	-0.11	-0.12	-0.03	-0.14	-0.09
	여	-0.45***	-0.23***	-0.24***	0.23***	-0.26***	-0.19***	-0.09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남	0.09	0.25***	0.05	-0.01	0.08	0.08	0.05
	여	-0.11	-0.02	-0.14	-0.14	-0.09	-0.07	-0.14
남아선호 사상	남	0.42***	0.37***	0.15***	0.04	0.07	0.34***	0.40***
	여	0.49***	0.37***	0.19***	0.19***	0.22***	0.39***	0.39***

\*\*\* p < .001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과 결혼관은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선택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대학생들의 남아선호와 결혼관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남아선호에 대한 가치관이 진보적일수록 결혼관도 대체로 진보적인 것을 의미한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아선호와 결혼의 필요성( $r=.42$ )과 여성취업( $r=.40$ )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배우자 선택( $r=.37$ )과 여성취업( $r=.34$ )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결혼의 필요성( $r=.49$ )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가사노동( $r=.39$ ), 여성취업( $r=.39$ ), 배우자 선택( $r=.37$ ) 이혼( $r=.22$ )에서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 있어서 결혼의 필요성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자손의 번성을 위한 결혼의 필요성에 진보적일수록 남아선호 사상에서도 진보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2)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관과 성역할관의 상관관계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관과 성역할관과의 상관관계를 〈표 5〉에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성역할관에 있어서, 남학생에게서 지적특성에서 정적인 상관 방향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부적인 상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성역할관은 부적인 상관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성역할관은 보수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나, 통계적으로 유의

〈표 5〉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관과 성역할관의 상관관계

		직업 및 외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지적 특성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남	-0.13	-0.14	-0.10
	여	-0.16	-0.12	-0.10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남	0.17	0.12	0.07
	여	0.01	0.15	0.06
남아 선호	남	0.31***	0.23***	0.28***
	여	0.42***	0.29***	0.35***

\*\* p < .001

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 성역할관은 정적인 상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상관정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대학생들의 남아선호와 성역할관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상관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선호에 있어서 진보적일수록 성역할관에 있어서도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및 외적 특성에 있어서 여학생들( $r=.42$ )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남학생( $r=.31$ )들은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심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학생( $r=.23$ )과 여학생( $r=.29$ )에 있어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지적 특성에 있어서도 남학생( $r=.28$ )과 여학생( $r=.35$ )은 대체로 낮은 정적 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관에서는 남아선호와 성역할관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의 인공유산과 성비의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남아선호의 경향성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관과 결혼관의 상관관계

남·녀 대학생들의 성역할관과 결혼관의 상관관계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직업 및 외적 특성에 대한 성역할관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남학생에게서의 동기를 제외하고는 정적인 상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경우는 동기( $r = .49$ )에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직업 및 외적 특성에서 진보적일수록 동기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가사노동( $r = .36$ )과 결혼의 필요성( $r = .34$ ), 여성취업( $r = .31$ ) 그리고 배우자 선택( $r = .23$ )에 있어서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결혼의 필요성( $r = .40$ )에서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가사노동( $r = .39$ ), 여성취업( $r = .39$ ) 배우자 선택( $r = .28$ ) 그리고 이혼( $r = .23$ )에서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남·녀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결혼관의 관계도 남학생에 있어서 동기를 제외하고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무시할 정도

의 매우 낮은 상관이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결혼의 필요성( $r = .22$ )과 가사노동( $r = .21$ )에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결혼의 필요성( $r = .30$ ), 여성취업( $r = .30$ ), 가사노동( $r = .23$ )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남·녀 대학생들의 지적 특성과 결혼관에서도 대체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가사노동( $r = .34$ )과 결혼의 필요성( $r = .29$ ), 여성취업( $r = .26$ ), 배우자 선택( $r = .20$ )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가사노동( $r = .36$ ), 결혼의 필요성( $r = .35$ ), 여성취업( $r = .29$ ), 배우자 선택( $r = .28$ )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V. 요약 및 논의

현대 사회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혼재속에서 특히 가정의 해체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가정의 주역이 될 예비 부모 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형성하게 될 가정의 안정성을 예측해 보고,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대신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부모세대인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을 알아보았다.

먼저 결혼관에서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가사노동( $M = 4.33$ )과 여성취업( $M = 4.23$ )에 있어서 가장 진

<표 6> 남·녀 대학생들의 성역할관과 결혼관의 상관관계

		결혼의 필요성	배우자 선택	혼전순결	동기	이혼	여성취업	가사노동
직업 및 외적 특성	남	0.34***	0.23***	0.11	0.49***	0.06	0.31***	0.36***
	여	0.40***	0.28***	0.07	0.10	0.23***	0.39***	0.39***
사회·심리적 특성	남	0.22***	0.17	0.08	-0.02	0.04	0.15	0.21***
	여	0.30***	0.18***	0.06	0.08	0.19	0.30***	0.23***
지적 특성	남	0.29***	0.20***	0.09	-0.03	0.07	0.26***	0.34***
	여	0.35***	0.28***	0.04	0.10	0.17***	0.29***	0.36***

\*\*\* P < .001

보적인 성향을 나타내었고, 동거(M=2.58)와 혼전순결(M=2.99)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동거에 대하여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가사노동(M=3.57)과 여성취업(M=3.54)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경향을 나타내었고, 동거(M=2.87)와 이혼(M=2.89)에서 대체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남학생들도 동거에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보다는 상황에 따라 특히 맞벌이 부부일 때,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취업에 있어서는 결혼과 경제력에 좌우되기보다는 자아실현으로서의 취업을 열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여자는 결혼만 잘 하면 된다는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고, 이혼에 대하여는 허용적인 경향이 있으나, 대체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기 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학생들은 가사노동과 여성취업, 결혼의 필요성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이혼과 동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 본 결과,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는 성차에 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결혼관은 대부분 성에 따라서 가치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변수들 보다 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의 남·녀 대학생들은 결혼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결혼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대와 사회 문화적인 기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녀관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이를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자녀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전환기에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연구(양명숙, 1995)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 집단과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집단간의 심리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녀관에 있어서는 기타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성에 의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서 자녀관에서 성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결혼 후에도 취업을 강력히 희망하는 여학생들의 경우에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자녀로 인한 장애 요인이 더 부각되는 것은 여전히 자녀의 양육은 여성의 일로 인식되는 우리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육아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성역할관을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직업 및 외적 특성과 사회적·심리적 특질 그리고 지적 특성에 있어서 남학생들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김동일(199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역할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살펴본 결과, 성에 의한 차이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자녀관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결혼관이 진보적일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선택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배우자 선택에서도 진보적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남아선호에 있어서는 대체로 진보적일수록 결혼관도 진보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성역할관과 결혼관에 있어서는 서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성역할관이 대체로 진보적이면, 결혼관에서도 낮은 상관정도이지만,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과 성역할관에서는 남아선호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자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가치관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즉 사회적으로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남아선호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성이 남녀 모두에게 유의하게 나타난 바, 성에 관련된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들 간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기타 변수보다는 성이 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간의 가치관의 불일치는 미래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남·녀 대학생들의 가치관의 차이로 야기될 수 있는 가정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 성별에 의하여 이분화된 가치관과 편견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교육적 접근과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전지역의 남·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한국가족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강호철,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2) 공정호·차재호, 한국인의 남아존중, 한국행동과학 연구소, 1973.
- 3) 김동일 편저,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1991.
- 4) 김양희, 여성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여성연구, 1991.
- 5) 김정옥, 이혼의 사회적 배경,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 가족불안정성과 가족문제중심으로 -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1992.
- 6) 김정옥·박경규, 이혼의 사회적 배경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1(4), 1993.
- 7) 김태현, 다양한 가족생활 유형, 한국가족학연구회 권, 가족학, 서울: 하우, 1993.
- 8) 김희선·성미애, 배우자 선택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1(2), 1993.
- 9) 문신화, 조성혜, 남녀대학생의 여성문제 의식에 관한 소고, 부산여자 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3(1), 1991.
- 10)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행, 서울: 나남출판사, 1992.
- 11) 유시중·김기태, 대학생의 결혼관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연구보(12), 1976.
- 12) 유영주,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집, 1976.
- 13) 이광규, 후기산업시대의 가족 공동체, 후기산업시대의 세계공동체 1. 가족(가족의 변화와 전망), 서울: 우석, 1989.
- 14) 이성해, 미혼남녀의 결혼관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문리과 대학, 인문사회과학편(18), 1973.
- 15) 이숙재, 대학생들의 자녀관, 자녀양육 지식 및 부모역할 이해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학생생활연구소(6), 1983.
- 16) 이영자·민경자·이정옥, 성평등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3.
- 17) 이효재·이동원, 남녀대학생의 가족설계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소 논문집(22), 1974.
- 18) 임진, 일부 미혼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19) 양명숙, 한국 부모들의 출산력 차이에 대한 연구(II) -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 한남대학교 인문과학 논문집, 제 25권, 1995.
- 20) 서정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21) 전병제, 이시형, 광배희, 김문조, 위기에 선 가족, 서울: 다산출판사, 1994.
- 22) 최신덕, 청년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3), 1980.
- 23) 최신덕, 결혼과 가족관계, 서울: 기린원, 1991.
- 24) 최중옥·김정자·추계자·김주희, 여성취업에 대한 남학생의 태도 연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

- 소 여성학연구 2(1), 1990.
- 2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1992.
  - 26) 한남제,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91.
  - 27) 한남제외 공저,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서울 : 다산출판사, 1994.
  - 28) 황인실, 대학생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사회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29) Arnold, F., Bualtao, R.A., Buripakdi, C., Chung, B.J., Fawcett, J.T., Iritani, T., Lee, S.T. & Wu, T.S., the Value of children : Across-national study, introduction & comparative analysis, Vol. 1, Honolulu, Hi :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1975.
  - 30) Baiter, H.J., Fruchtbarkeit-Generatives Handeln : Ein Erklärungsansatz des generativen Handelns in hochmodernen Gesellschaften, Unveroeff. Dissertation, Universitaet Augsburg, Augsburg, 1985.
  - 31) Ebel, H., Eickelpasch, R. & Kuehne, E., "Familie in der Gesellschaft", Opladen : Westdeutscher Verlag, 1984.
  - 32) Goldbrunner, H., Arbeit mit Problemfamilien, Mainz : Matthias-Gruenewald Verlag, 1992.
  - 33) Hoffmam, L.W. & Hoffmam, M.,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 In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 Basic Book, 1973.
  - 34) Kiefl, W., Schmid, J., Emprische Studie zum generativen Verhalten : Erklarungsbefunde und theoretische Relevanz, Boppard am Rhein : Boldt, 1985.
  - 35) Schneewind, K., Familien-psychologie, Stuttgart : Kohlhammer GmbH, 1991.
  - 36) Thomson, E. & Colella, U., "Cohabitation and Marital Stability" - Quality or Commitment? -, J. of Marriage and Family, 54. 1992.
  - 37) Yang, M.S., "Die Beduetung von Rollenauffassungen bei koreanischen Eltern, ihre Stabilitaet beim Uebergang zur Elternschaft und ihr Beitrag zur Generativitaet", Heinrich-Heine Universitaet Dueseldorf Dissertation, 1990.